문화포교 선도 '쿠무다' 새로운 도약

12월 9일, 명상문화센터 이전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 수용위해
기존건물 맞은편 지하2층 지상8층
콘서트홀 법당 무대에 석가모니불
장학재단 명경문화재단 출범식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쿠무다 명상문화센터'가 12월 9일 이전 개원했다. 개원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개원을 축하하며 테이프를 컷팅하고 있다.

불교문화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는 '쿠무다 명상문화센터'가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문화예술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이하 쿠무다)는 12월 9일 기존 건물 맞은편(부산 해운대구)에 신축한 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지하1층 콘서트 홀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2013년 처음 문을 연 쿠무다는 현대적인 카페 공간에서 불교복합문화를 선보이는 파격적인 행보로 눈길을 모았다. 이번 불사는 좀 더 다채로운 공연과 불교문화를 선보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공간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이전 개원했다. 새롭게 문을 연 쿠무다 명상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8층이며 총면적 2970㎡이다.

신축 쿠무다 명상문화센터에서는 콘서트홀 법당 무대에 모신 석가모니부처님 입상과 하늘정원의 관세음보살상, 서핑하는 나한 등 고전적인 미와 톡톡 튀는 현대적인 미를 동시에 자랑하는 작품들이 눈에 띈다. 이뿐 아니라 송정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명상공간과 문화예술을 위한 문화공간, 채식요리 교육관 등 복합문화 공간도 새롭게 대중들을 만난다.

개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전국 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 화엄회 회장 상화 스님,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신명환 대운사 신도회장, 차재돈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기획국장 등 전국의 승 · 재가 내빈들이 동참해 축하했다.

개원법회는 △삼귀의 △환영사 △경과보고 △인사말씀 △치사 △격려사 △이사 위촉패 전달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장학금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축하무대로 쿠무다 챔버 뮤직 및 LMB싱어즈 등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참가한 내빈들의 법명과 이름을 부르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오늘이 시작이란 마음으로 수행자로서 여법하게 정진할 것이다"며 "불교문화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발원에서 시작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다. 오늘 이 불사가 완공하기 까지 함께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큰일을 해내신 주석 스님에게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낸다. 오늘 아름다운 부산 앞바다 송정의 중심에 찬란한 하얀 연꽃이 피었다. 새로운 불교문화의 중흥을 선도할 쿠무다 이전불사의 회향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무비 스님은 "구시대적인 불교적 사고로는 이런 불교포교는 꿈도 꾸지 못한다. 불교를 젊게 하고 신세대적으로 이뤄낸 지극한 신심과 원력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치사했다.

이 외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과,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전국비구회 회장 본각 스님의 승가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의 축사도 진행됐다.

쿠무다는 또한 새로운 문화포교의 도약을 위해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유연선원 주지 희상 스님 등 12명의 이사들을 임명했으며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했다. 쿠무다는 동국대에 문화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 부산대에 장학금 1억 원 기부협약, 대동대에 5000만 원 협약, 영산대에 5000만 원 장학금 협약 등 문화예술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쿠무다는 이날 개원법회에서 장학재단 명경문화재단의 출범도 알렸다. 명경문화재단의 '명경'은 이사장 주석 스님의 법호이다. 명경문화재단은 동국대에 장학금 3억 원을 약정하고 매년 3000만 원을 10년 동안 전달 할 것을 밝혔다.

쿠무다의 발전을 위한 후원도 이어졌다. 부산 비구니 자비봉사 모임 화엄회가 1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참여 불자들은 쿠무다 콘서트홀 좌석기부 캠페인에 동참했다. 쿠무다는 현재 불사 후원을 위한 좌석기부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콘서트홀은 클래식부터 연극 등 모든 분야의 공연이 가능하며 220석 규모이다. 기부금액은 108만 원이며 기부자의 명패가 설치될 예정이다.

화엄경 진수 전하는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법회동안 30명 법사스님 릴레이
〈화엄경〉 39품 내용 상세 법문
10만 영가 위해 천도 및 법성게


영축총림 통도사가 12월 4일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입재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12월 4일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입재했다.

통도사는 매년 화엄산림법회를 통해 〈화엄경〉의 진수를 전하고 있다. 입재일부터 다음해 1월 2일까지 30명의 법사스님들이 릴레이로 〈화엄경〉 39품에 담긴 내용을 상세히 법문한다.

입재법회는 불공에 이어 방장 성파 스님의 법문과 주지 현문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영가 시식 순으로 마무리됐다.

방장 성파 스님은 법문을 통해 개산조인 자장율사가 '화엄의 대가'이며 통도사 도량 구조와 화엄법석으로 그 정신을 잇고 있음을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자장율사가 창건한 통도사를 계율 근본 도량으로 알고 있지만 자장율사는 중국 당나라에서 화엄의 대가로서 설법을 하고 국빈으로 모셔졌다. 통도사 화엄법회는 한국전쟁 등 난리 속에 잠시 멈춘 적은 있어도 지속적으로 그 정신을 이어 법회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도사 도량도 화엄의 가르침을 보여준다. 가람 배치만 하더라도 화엄의 9품 연대를 보여준다. 전각에 참배만 하더라도 억겁에 지은 죄가 눈 녹듯이 녹을 것이다"고 설법했다.

〈삼국유사 4권〉에는 "자장율사는 태어난 집을 원녕사(元寧寺)로 고치고 낙성회를 열었으며 〈화엄경〉 1만 게송을 강의하자, 52명의 여인이 감동하여 몸을 현세에 드러내었고 강의를 들었다. 제자들에게 그들의 수만큼 나무를 심게 하여 그 기이한 자취를 나타내게 하고 그 나무를 지식수(知識樹)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자장율사는 중국의 화엄5조(華嚴5祖) 중 초조인 두순 스님과 동시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광명전을 건립해 화엄사상을 드러냈음을 엿볼 수 있다.

통도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과 온라인 법회 안내로 안전한 법석을 진행한다. 통도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온 · 오프라인 동시 법회를 실시한다. 설법전에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정원 50%만 입장이 가능하다. 현장 동참이 어려운 불자들은 '유튜브 통도사 TV'와 네이버 밴드 '화엄의 숲'을 통해 실시간 방송 및 다시보기를 할 수 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불자들에게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으며, 법회와 더불어 〈화엄경〉 독송수행으로 성장할 것을 독려했다. 현문 스님은 "코로나 역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역 수칙에 따라 백신접종과 체온을 확인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바란다"며 "한 달 동안 진행될 법회 기간 동안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사중의 모든 스님들과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참석 대중들은 법회를 통해 수행하고 경전을 읽으며, 법회를 정진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기간에는 10만여 개의 위패를 법당에 모신다. 전국의 불자들이 영가들도 법문을 듣고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으며 매주 토요일 법성게 기도와 일요일에 천도재를 봉행해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회향일에는 영가 위패 소대의식이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영 대성암, 사랑의 김장나눔



통영 대성암(주지 승원)이 12월 7일 경내에서 제7회 사랑의 김장나눔을 진행했다.〈사진〉

대성암은 매년 인근 지역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대성암 신도가 직접 재배한 배추 250포기로 담근 김장김치 70박스를 전달했으며, 김장 봉사에는 대성암 신도회가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승속 함께한 해인사 화재진압 소방훈련

합천소방서와 산불진압 훈련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12월 7일 해인사 수미정상탑에서 소방훈련을 진행했다.〈사진〉

합천소방서 현장대응단(단장 고재호)과 합동으로 진행한 소방훈련에는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주지 현응 스님, 총무 진각 스님, 국장 스님들과 선원 및 승가대학 스님, 종무원과 해인사 의용소방대 20여 명이 참여했다. 합천소방서에서는 소방차 2대를 동원했으며, 산불이 사찰로 내려오는 것을 가정해 불길을 막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현응 스님은 "소방훈련에 참여한 합천소방서와 의용소방서, 마을주민과 신도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소방훈련에서 미흡한 부분을 검토해 발화를 즉시 신고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유사시 성보 이운과 관광객 대피 등을 다음 훈련에서 보완하자"고 당부했다.

총무국장 진각 스님은 소방훈련 총평에서 "해인사는 우리나라 최고 화재 진압 체계를 갖추었다. 학인 때 소화전 사용을 배웠는데, 주지를 살 때 법당 인근에 산불이 나 그때 배운 지식을 활용했다"며 "해인사 스님들이 조직적으로 소방훈련을 잘 받은 것 같다"고 평했다.

고재호 합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십여 년 전 거창소방서 합천소방파출소가 독립적인 합천소방서로 된 것은 팔만대장경 등 세계적인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라며 "스님들께서 보이지 않게 잘 관리를 해오셨다. 이번에 합동 훈련으로 초기 화재진압 등 문화유산 보존에 더욱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신뇨엔, 인재불사 위한 나눔 이어가

동명대 · 동국대에 장학금 총 2000만 원 전달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이사 정경, 이하 신뇨엔)이 인재불사를 위한 이타행을 이어 가고 있다. 신뇨엔은 12월 3일 신뇨엔 부산정사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동명대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사진〉 장학금은 동명대 학생들의 해외 탐방 지원금 및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신뇨엔 상임이사 정경 국원, 신뇨엔 부산정사 영준 국원, 장재진 동명대 교수와 동명대 불교동아리 학생 및 글로벌컨텐츠학과 학생 15명이 참석했다.

한편, 신뇨엔은 지난 11월 30일 동국대를 방문해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정경 국원과 곽채기 교무부총장 등이 동참했다. 신뇨엔은 3년 연속 동국대에 로터스관 건립 및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전달해 동국대의 발전과 학생들의 성장을 응원해 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영광사, 자비의 쌀 · 장학금 전달

영도구청에 백미 600kg 장학금 100만원



부산 영도 영광사(주지 여공)가 12월 2일 영도구청에서 자비의 쌀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영광사는 이날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백미20kg 30포대 600kg과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겨울철과 송년을 맞아 이웃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백미는 부산 영도 신선동에 거주하는 소외이웃에게 전달되며 장학금은 영도구청에서 출현한 장학회에 전달해 학생들에게 회향된다.

전달한 백미와 장학금은 영광사 신도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전달식에는 주지 여공 스님, 김철훈 영도구청장, 박종이 영광사 신도회장 등 영광사 신도들이 동참했다.

영광사는 금정총림 범어사 말사이며 이번 해 3월 여공 스님이 주지로 취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천불정사, 성금 및 백미 전달

금정구청서 전달식 개최



인재불사도량 부산 금정구 천불정사(주지 고담)가 12월 6일 금정구청에서 연말 이웃 사랑 자비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천불정사는 이날 성금 300만 원과 백미 1000kg을 후원했다. 전달한 성금 및 백미는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천불정사는 부산대 고시준비생을 위한 공간 고담정을 후원하고 있으며 매년 행정고시 합격생이 주지 고담 스님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올해는 행정고시 2명과 기술고시 1명이 합격했다. 아울러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주지 고담 스님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해 금정구에서 주최한 제31회 향토봉사상을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일본군 위안부 추모마당 개최

생명평화제전 공동주관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12월 4일 홍법사 경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본군 위안부 해원상생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생명평화제전 추진본부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아픈 역사로 희생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넋을 천도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공연은 온새미풍물패의 길놀이 · 열림판굿을 시작으로 천도재가 이어졌으며 샌드아트, 시, 노래, 음악, 춤 등으로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를 기원하는 무대가 마련됐다.

심산 스님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의 참혹했던 아픈 역사를 함께 아파하며, 전쟁과 폭력으로 인권의 존엄이 말살당하는 참담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길 발원한다"고 기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울산 신흥사, 선열당 불사 회향

12월 4일 현판 제막식 개최



울산 신흥사(주지 종현)가 선열당 불사를 마치고 12월 4일 경내에서 선열당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사진〉 불자들의 쉼터이자 공양간으로 마련된 선열당은 기존 1층 건물에 한 개 층을 신축해 올린 전통 기와 목조 건물 형태로 지어졌다.

선열당은 공양을 통해 참된 도를 성취하라는 의미로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이 내린 현판이다.

주지 종현 스님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이 수행이다. 그 가르침을 불자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했다"며 "음식을 약으로 알아 수행하는 방편으로 삼고 더욱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에 위치한 신흥사는 매년 4월 23일 추모행사를 마련하고 있으며 산사음악회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